

20년 전 온라인 교육 포문... 대학의 새로운 트렌드 되다

인터뷰 | **육효창**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행정부총장

육효창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이하 서울문화예술대) 행정부총장은 서울문화예술대가 전국 21개 사이버대학 중 유일하게 문화예술 특성화대학으로 자리 잡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인물이다. 한류 열풍(케이팝, K-pop)이 시작된 이후 '한국어'를 세계로 널리 알리기 위한 교육자를 양성하며 한국과 세계를 문화로 잇는 허브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는 20년 전 문을 연 이 대학의 개교 원년 멤버이기도 하다. 육효창 행정부총장의 20년 이력은 전공인 한국어 분야를 넘어 사이버대학 발전으로까지 넘나들었다. 일반 오프라인 대학보다 20여년 먼저 시작한 온라인 교육이 이제는 대학 교육의 새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대학들이 혼란을 겪는 사이, 사이버대학은 흔들림 없이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20여년간 쌓아온 노하우 덕분이었다. 서울문화예술대는 온라인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고등학교를 찾아 온라인 강의 컨설팅 활동을 하며 도움의 손길을 보내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서울문화예술대가 그간 다져왔던 내실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교육부의 원격대학 대상 첫 중장기 재정지원사업인 교육혁신 지원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한국어교육센터가 법무부로부터 '제14주년 세계인의 날'을 맞아 법무부장관 단체상을 수상한 것.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는 '2021년 한글학교 교사 온라인 연수 대령기관'으로도 선정돼 온라인 동영상 강의의 부문을 담당한다.

육효창 부총장은 "사이버대학은 갑작스런 코로나19로 인해 존재감이 크게 두드러졌지만 현재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온·오프라인 대학의 경계가 무너져 무한 경쟁 시대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교육부는 20년간 온라인 교육 내실을 다져온 사이버대학의 재정 지원을 늘리고, 온·오프라인 대학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육효창 행정부총장과와의 일문일답.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대학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이버대학은 오히려 온라인 교육 장점이 부각되며 주목받았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대한민국 사이버대학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20년간 축적해온 교육 노하우의 진가를 전 세계에 유감없이 드러내지 않았나 생각한다. 서울문화예술대도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을 선도해온 문화예술 장점이 크게 부각되며 세간의 이목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의 사명감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컨설팅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교육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20여년간 축적된 노하우 덕분이다."

-고교 컨설팅은 어떻게 이뤄졌으며 그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지.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전국적으로 사상 초유의 온라인 수업이 이뤄졌지만, 공교육 현장은 그동안 온라인 수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당시 컨설팅을 요청해 온 고등학교에서도 EBS 콘텐츠 활용형 수업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고, 직접 제작하는 소수 선생님도 기본적인 기능 활용에 그친 상태였다. 광주 전남고등학교, 수원 화홍고등학교, 안산 초지고등학교 등을 방문해 교사들에게 강의 녹화·편집프로그램을 활용한 강의제작 방법과 온라인 강의에 필요한 원고·교안 작성 방법 등을 전달했다."

교육부 '원격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 선정돼 '혁신 모형 개발' 한국어교육센터, '제14주년 세계인의 날' 법무부장관 단체상 한국어교육학과 재학생 50여개국 400여명... 졸업생 1000여명

-코로나19 이후 학생 수 변화 추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이버대학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가 부각되고 고양된 것은 사실이다. 곧바로 입학생 증가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재학생 재등록률(학생이 휴학하지 않고 다음 학기에 진학하는 것)이 높아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20년 1학기 재학생 재등록률이 83.2%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1년 1학기 재학생 재등록률이 86.6%로 나타나 상승폭이 3.4%포인트에 달했다. 사이버대학의 장점을 새롭게 인식했다는 방증이라 날까 생각한다. 향후 사이버대학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과 이미지 고양에 입학생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문화예술대는 특히 문화예술교육이라는 특성화가 다져진 대학이다.

"국내 사이버대학이 당초 성인 재교육,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시작했다면, 서울문화예술대는 문화예술 교육에 초점을 맞추며 타 사이버대



학과 다른 색깔을 분명히 하며 성장했다. 우리 대학에는 연극영화학과·토탈미용예술학과·사회체육학과·실용음악학과·건축공학과·모델학과·시각영상디자인학과·실버문화경영학과·한국어교육학과·반려동물학과·조리학과·항공정비학과·항공서비스학과·항공보안학과 등 총 14개 학과가 개설돼 있다. 문화 예술 계열 학과가 많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학과를 개설해 수능을 마친 고3학생이 입학하는 비율이 다른 대학에 비해 50% 이상 높은 편이다."

-부총장님이 속해 있는 한국어교육학과에 해외 수강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어교육학과는 지난 13년동안 1000

(新)-KOREA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융합 실무인재 양성 교육혁신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원격교육 체계의 한계를 뛰어넘어 특성화 기반의 융·복합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퀀텀점프' 모델에는 한류 차원에서 타 대학과 지역사회, 해외 등에 보급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제14주년 세계인의 날'을 맞아 한국어교육센터가 법무부장관 단체상을 받았다.

"우리 대학은 지난 2013년 사이버대학 최초로 경기 안산에 오프라인 한국어교육센터를 설립해 9년간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교육센터는 개설 1년 만에 외국인교육 지정기관으로, 그 이듬해에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정기관으로도 선정됐다. 한국어교육센터는 안산에 이어 2017년에는 서울에, 2019년에는 진천학습관에도 개설했다. 올해 말 서울 한국어교육센터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이번 법무부장관 단체상은 우리 대학으로서 의미가 크다. 한국어교육센터를 통해서 작게는 한국어교육학과에 입학하는 학생 학습의 장 및 졸업 후 취업의 장으로, 크게는 우리나라 외국인·이주인 교육 산실의 역할을 하는 것이 포부이다. 법무부장관 단체상은 그런 포부의 이정표가 아닐까 한다."

-해외동포를 위한 다양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문화예술대는 재외동포재단과 2009년 재외동포 교육문화 사업을 위한 MOU를 통해 '재외한글학교 교사 사이버연수과정'을 13년째 운영하고 있다. 올해도 재외한글학교 교사를 위한 온라인 연수 대령 기관으로 선정됐다. 한국능력협회와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고, 지난 4월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제안서 심사 결과 4대 1의 경쟁을 뚫고 최종 결과를 받았다. 이에 따라 온라인 동영상 강의는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실시간 원격강의는 한국능력협회가 각각 맡는다.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의 기획 및 개발은 육효창 부총장이 제7, 8대 회장을 역임한 국제한국어문화학회(INK) 현 임원진이 맡았다. 연수는 재외동포로서 한글 학교에서 수업하는 현지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총 400여명의 연수생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국내외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고 연수생과 공감되는 맞춤형 강의 내용을 구성해 연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인센티브로 온라인 연수 수료자는 차기 초청(대면)연수 재개시 우선 선발될 예정이다. 자세한 모집 내용과 신청방법은 코리안넷, 스티디코리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한창대 수습기자 cdl@metroseoul.co.kr

